

‘큰일나요’ 2題

타지 마세요

송정역 앞 승차장 외 도로 택시 승차 금지...7월 1일부터
기사 과징금 120만원 등 제재...밤 10시~오전 7시 가능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지정된 택시 승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하지만 카메라로 잠깐 타고 내리는 걸 적발 하지도 못 하는 데다, 단순 인력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시는 19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광주 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일원 택시 승차 금지(승차거부) 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 금지 구역은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부터 송정역 택시승차대까지, 광주송정로 시작점에서 송정로 1번길 교차점까지다.

택시 기사가 이 구간에서 택시 주·정차 행위와 승객 승차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20일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며, 2차 위반 시 120만원·40일, 3차 위반 시 360만원·60일로 가중된다.

단,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새벽 시간대에는 승객의 플랫폼 앱 호출을 통한 영업은 가능하다.

또 광주시는 오는 6월 중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광주도시철도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택시하차구역을 신설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택시가 승객 하·승차를 위해 멈춰서면서 교통정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기로 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정 승차대 외 지역에서 택시에 승차한 건수를 집계한 결과 34만 989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757건씩 지정승차대 외 무단승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4월 광주시내 택시승차금지구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승·하차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통 체증을 줄이겠다는 취지임에도, 단속 인원이 없을 경우 실효성 없는 단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캠페인을 실시해 광주 지역 택시 기사들과 시민들에게 승차 금지 구역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지 마세요

남구, 공원 비둘기 모이 주면 과태료 부과...11월까지 계도
도시미관 훼손·위생 문제·주민 불편 등 이유...실효성 의문

앞으로 남구 도심공원 등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는 데 따라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선다.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미관 훼손, 위생 문제, 주민 불편 등을 들어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남구에 지정된 구간에서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 유해조류에게 직접 먹이를 주거나, 이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먹이를 남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남구는 오는 8월 말까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유해조류 관련 민원이 반복 접수된 지역 ▲질병 전파 차단이 필요한 취약지역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

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최초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초과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방식과 점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먹이 제공 여부와 금지구역 설정 기준 등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구는 계도기간 동안 주요 자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주민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물 부식, 도시미관 훼손, 위생 문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유해조류의 밀집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수국 신품종 만나세요

19일 오전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에서 전남도가 개발·육성한 수국 신품종이 공개됐다. 농업기술원은 수국 신품종 관람 차원에서 원예연구소를 오는 21일까지 개방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 ‘옛 도청’

5·18 45주년, 여기는 꼭!

9월 복원 완료 후 12월 개관

항쟁 의지 불태웠던 분수대

전시·오월창작가요제 무대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이하 도청·사진)과 5·18민주광장 분수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이자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로서 5·18 사적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5월 18일 이전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 분수대를 연단 삼아 ‘민족민주화성회’ 등 각종 집회를 열며

항쟁 의지를 불태웠고, 5월 21일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 있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시민들은 21일 계엄군 철수 이후로도 도청 앞 광장에 모여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 결의를 다지는 각종 쉼터대회를 열었다.

도청은 시민군의 항쟁 지도부가 자리잡은 곳이자 5월 27일 무력 진압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다 산화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도청 상무관은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면서 시민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후 도청과 분수대 주변 풍경은 급변했다. 도청은 1999년 이후 무안군으로 이전됐고, 도청이 있던 자리에는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건립됐다.

현재 도청은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복원 사업



으로 가림막을 쳐둔 채 공사 중이다. 복원 공사는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며, 5·18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와 함께 오는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분수대는 지난 2022년 빛의 분수대로, 2023년 음악분수로 개조돼 밤마다 빛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5월 내내 도청 일대에 5·18 역사 기록 작품과 창작품 등이 전시되며, 상설 무대를 통해 상설음악제 ‘오월의 노래’도 개최된다. 24일에는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도 열린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

벌써 더우면 어찌라고

광주·전남 낮최고 30도

광주·전남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 지역은 고기압 영향을 받아 아침최저기온은 17~20도, 낮최고기온은 22~31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또한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최고기온은 22~28도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1일 새벽 0시부터 낮 12시 사이 전남 남부에 5mm 안팎의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작가에게 글쓰기 도움 받고 문집 내자

도립도서관, 참여자 모집

작가에게 글쓰기 도움을 받으며 문집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9일 전남도립도서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상주작가가 도서관과 함께 문학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면서 자신의 집필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사업으로, 도립도서관

은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윤소희 동화작가와 문학 입문 과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글쓰는 법 등을 익히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문집 발간과 전시회도 갖게 된다.

프로그램은 27일 개강하는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낭독과 필사’ 과정과 29일 개강하는 ‘나만의 책, 어떻게 시작할까’로 나뉜다. 이외 어린이 작가 캠프 ‘장래희망은 노벨문학상!’ 등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알바 댄스 해볼래?

알바 댄스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KOREAN FINANCIAL SUPERVISOR

국민건강보험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RE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KOREAN INSURANCE GUILD ASSOCIATION